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677천 Km ²	G D P	430억 달러 (2010년)
인구	50.4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702달러 (2010년)
정치체제	과도군사정부	통화단위	Kyat(Kt)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970 (2010년)

- 미얀마는 서남아 인도지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1인당 GDP 702 달러(2010년 기준) 수준의 저소득 농업국이며 제조업은 식품가공 및 단순경공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음. 광물자원이 풍부하나 사회간접자본 부족과 기술 낙후 등으로 자원개발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
- 2010년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수출 확대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며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정부 출범과 국제 천연가스 및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군부독재 등으로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왔으며 1997년 ASEAN에 가입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2007년 9월에 발생한 승려들의 시위에 대한 군부정권의 탄압을 비판하며 경제제재를 강화하였음. 2010년 총선 이후 신정부가 출범했으나, 비민주성과 인권유린 등의 이유로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ASEAN 국가들도 미얀마에 대해 민주화일정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표면적으로는 촉구하고 있으나, 미얀마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통일된 의견을 표출하고 있지 못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3.4	1.1	1.8	3.3	3.2
재정수지 / GDP	-3.0	-3.5	-4.8	-5.1	-5.2
소비자물가상승률	35.0	26.8	1.5	7.7	11.6

자료: IMF, EIU.

□ 천연가스 수출 증가로 경제 회복세

- 2008년 금융위기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09년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0년 신정부 출범과 천연가스 및 원유가격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상승한 3.3%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전력, 인프라 부문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외투자 유입이 예상되어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동국 정부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는 지난 2010년 1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으나, 각 부문별 구체적 통계자료 및 산업 생산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취약한 세수 기반으로 만성적 재정적자

- 국방비 및 수도 네피도(Naypyidaw) 정비 사업 등으로 정부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효율적인 국영기업과 지하경제의 발달로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총선을 앞둔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4.8%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총선 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5.1%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폭등세 진정

- 2007년 식료품 및 유류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35%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석유 및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물가상승률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26.8% 수준을 기록함.
- 2009년 이후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여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 하락한 7.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1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및 공무원 임금인상,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화폐 발행 등으로 두 자리 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경제구조

-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2%에 이를 정도로 농업의존도가 높으며, 제조업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여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함.
-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및 비료 등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열악한 사회 인프라

- 전력, 도로, 항만, 통신 등의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여 산업 기반이 미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 등으로 인프라 투자도 많지 않은 실정임.
- 중국, 인도, 태국 등이 미얀마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적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국의 원활한 자원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원조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미얀마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함.

□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지속

- 2003년 5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및 의류제품 등의 대 미국 수출이 중단된 상태임. 특히 2007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정부의 폭력진압 사태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08년 미국은 제이드링(Jade Act)¹⁾을 추가함으로써 대 미얀마 제재를 한층 강화했고, 2010년 총선 이후 신정부가 출범했으나 비민주성과 인권유린 등의 이유로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음.
- 1997년부터 제재를 시작한 유럽연합은 대 미얀마정책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이 발생했으나, 2011년 초 종전의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함.
 -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대 미얀마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 이므로 향후 유럽연합의 대 미얀마 제재 유지 여부는 불투명함.

나. 성장 잠재력

□ 삼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미얀마는 중국, 인도에 이은 아시아 3위의 삼림 보유국으로 토질이 양호한 미경작지가 많아 농산물 생산 증대 가능성이 큼.
- 철광석, 구리, 아연 등의 비철금속이 풍부하고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천연가스는 2008년 말 기준 17.5조 입방 피트(아시아 8위)가 매장되어 있으며 미얀마의 최대 외화소득원임.

□ 저임의 노동력 확보 가능

- 2010년 기준 미얀마의 인구는 5,0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도 주변의 중국, 베트남 보다 저렴함.

1) 2008년 7월 29일 미얀마산 보석의 미국 수입금지와 광산분야 진출 금지, 미얀마 정부 전·현직 인사에 대한 자금 동결 등을 포함하는 제재조치임.

- 저임금 노동력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거대 소비시장과 인접한 입지조건

- 미얀마는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소비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그 가치가 높고 동, 서남아를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 정책성과

□ 정부주도의 민영화 박차

- 2007년 4월 기준 총 288개의 국영기업이 운영되었으며, 미얀마 정부는 2011년까지 국영기업의 90%를 민영화 추진할 전망이다.
- 2011년 초 기준으로 민영화는 70% 정도 추진되었으며, 향후 정부가 정한 12대 품목 이외의 부문이 순차적으로 민영화될 전망이다.
- 민영화 5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투명한 매각절차도 없기 때문에 민영화는 주로 권력층과 결탁한 정실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신정부의 경제개발 의지

- 미얀마 정부는 태국 이탈리아이사(Italian-Thai Development: ITD)와 함께 중국 심천(深圳)항 개발을 모델로 미얀마 하부 떠닝다이주의 주도(州都)이자 항구도시인 더웨를 향후 10년 간 심해항구 및 경제특구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함.
- 2011년 2월 18일 동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첨단기술, 정보 및 통신, 수출제품, 해상항구, 포워딩, 과학 및 기술 연구, 서비스업 등 10개 분야 사업체 운영이 동 법령에 명시됨. 총 투입 금액은 580억 달러이며 부지는 10만 에이커(4만 헥타르)임.

-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1988년에 공포한 외국인투자법 이후 23년 만인 2011년 1월에 최초의 경제자유화 법령인 경제특별구역(SEZ)법을 제정 및 공포함.
- 각종 예비법령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법령이 사문화되었던 기존 외국인 투자법과 달리 투자여건과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 이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 및 국가수출 진흥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1,853	1,369	730	1,544	1,050
경 상 수 지 / GDP	11.4	6.0	2.8	4.9	2.5
상 품 수 지	3,252	3,028	2,722	4,348	4,121
수 출	6,279	6,916	6,673	8,570	9,621
수 입	3,027	3,888	3,951	4,222	5,500
외 환 보 유 액	2,312	3,412	3,561	3,762	3,929
총 외 채 잔 액	8,237	8,002	8,186	7,998	8,145
총외채잔액/GDP	50.5	35.3	31.2	25.2	19.8
D. S. R.	2.4	4.1	4.3	3.4	2.8

자료: IMF, EIU.

□ 의류 및 천연가스 수출증가로 2007년 이후 상품수출 증가세

- 최근 중국, 인도, 태국 등 인접국들의 경제 활성화로 광물자원, 천연가스, 농산품, 목재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상품 및 경상수지 흑자 유지

-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으로 중국, 인도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8.4% 확대됨. 주요 수출품 중 견목류(hardwood)와 봉제류가 전년 대비 각각 26.2%와 26.9% 증가함.

- 상품수입 역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으나 품목이 주로 기계류 등에 국한되었으며, 수입국도 중국에 편중되어 있음.
- 상품수지의 흑자 유지는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로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과 미얀마 정부의 과도한 수입규제 정책에 기인하며, 상품수지 흑자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 주변국 투자유입 증가

- 2009년 중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3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품목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력발전 등이며, 향후 교통 및 건설 분야로의 투자 유입이 예상됨.
- 2009년 말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은 약 59억 달러이며, 분야별 투자 순위는 수력, 원유 및 천연가스, 광산 등임.

□ 석유 및 가스 수출 확대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이 국가 재정 증가에 기여하여 1988년 쿠데타 당시 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2011년 중 39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이후 암시장에서 달러대비 짜트화 환율은 1달러당 1천 짜트 이상 유지되었으나, 2010년 8월 이후 800-900짜트 수준으로 하락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총선을 통한 민간정부 출범

- 2010년 11월 7일, 1990년 이래 20년 만에 군부주도의 총선이 실시되어 군부가 조직한 연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총 1,154석 가운데 883석(76.5%)을 차지하며 압승함.

-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민주주의연합(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과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민족민주주의연합(Sha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SNLD)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국민민주주의의 힘(National Democratic Force: NDF), 민주당(Democratic Party Myanmar: DPM) 등의 민주세력은 참패함.
- 2011년 1월 31일 첫 정기국회가 개최되어 정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됨.
 - 떼잉쎬잉(Thein Sein) 전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띠아웅뎬우(Thiha Thura Tin Aung Myint Oo) 전 국가평화발전평의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 1서기와 싸이마옥캄(Sai Mauk Kham) 전 의사가 부통령에 당선 및 취임함.
 - 대통령실과 미얀마산업발전부(Myanmar Ministry of Industrial Development: MMID)를 신설하여 총 부서는 24개 부서로 증설되었고, 장관 5인은 2개 부처 장관을 겸직함. 민간 출신은 4명에 그쳤으며, 이외에도 각 주(14개) 장관 임명, 예산안 의결, 특별 기금 조성,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이 결정됨.

□ 지속되는 군부의 영향력

- 2011년 4월 1일부로 신정부 출범과 민간이양을 선포했으나 정치권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방안보평의회(National Defence Security Council: NDSC)와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최고평의회(State Supreme Council: SSC)의 편제로 인해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이 남아있음.
 - 헌법 제 7장에 군부(Tatmadaw)의 권한과 기능을 명시할 정도로 군부는 당분간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아웅산 수치의 가택연금 해제 및 활동 보장

- 2010년 11월 13일 가택연금 시효 만료로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되면서 향후 민주인사들의 정치활동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아웅산 수치는 현실적으로 민주화 노선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닌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이므로 그 역할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국제사회, 특히 서방세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든지 정치적 구속 상태로 전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신정부의 개혁 의지 피력

- 떼잉쎄잉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소수종족의 연방 내 통합 등 거시적 차원의 개혁 의지를 피력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음.
- 정치범 석방문제 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고, 실제로 정부의 개혁의지는 분야별로 성문화되지 않았음.
- 시장경제를 중요시 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고문단이 발족함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우 윈(U Myint) 전 양공경제대학 학장이 단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미곡 생산량 증대 등 농업 발전을 통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2. 사회동향

□ 2007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사회 안정화

- 2007년 8월 15일 정부의 유가 보조금 철폐 및 유류가격 인상을 계기로 승려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군부가 강력히 진압하여 시위대 중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소요사태와 같은 사회적 동요의 기미는 보이지 않음.
-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여 경제상황이 피폐해질 경우 봉기와 폭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치범 사면을 위한 청원운동 전개

- 첫 정기국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정치범의 석방안을 발의했으나 정부는 안전 상정조차 하지 않음.
 - 현재 약 2,100명의 정치범이 투옥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정치범이 단 1명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2011년 3월부터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무기명 서한을 작성하여 떼잉썬잉 대통령에게 매주 100통씩 전달하고 있음.
 - 정치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06년과 2007년 아웅산 수치의 가택연금 석방을 위해 실시된 ‘흰색 표현’(White Expression)과 ‘열린 마음’(Open Heart) 캠페인과 비슷한 성격을 띤.

3. 국제관계

□ 서방세계의 경제제재조치 지속 가운데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 타진

- 미국은 현재와 같은 미얀마 국내 정치구도에서 대 미얀마 제재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낮지만 기존의 제재 일색의 강경국면을 탈피하고 제재와 대화의 이중노선을 병행하고 있음.
 - 2003년 공포된 『버마 자유 및 민주화법령』에 따르면 미국은 NLD를 미얀마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음.
 - NLD 소속인 아웅산 수치의 입각, 정치범 석방, 정부-소수종족-NLD 간의 3자 회담 등의 세 가지 조건이 지켜질 경우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4월 미국이 미얀마 특사로 미첼(Derek Mitchell) 상원의원을 지명함에 따라 향후 두 정부 간의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EU는 미얀마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신임각료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를 해제하는 등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회원국 내에서도 제재 완화 방안 고려를 요청한 상황임.

- 일본은 신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얀마의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민주화를 앞당긴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는 사이클론 기리(Giri)의 피해복구를 위해 5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도 함.
-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EU보다는 중국, 인도,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주변국들은 경제적, 안보적 혜택을 이유로 미얀마에 대해 강력한 압력이나 제재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국면은 국내외적 정치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 미얀마 경제제재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에 대한 중국, 아세안의 지지

- 중국은 가장 먼저 미얀마 총선을 정치발전을 위한 긍정적 단계로 평가했고, 신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보내 민정이양을 축하하는 등 군사정권시기보다 한 차원 높은 우호관계 발전에 관심을 보임.
 - 2011년 3월 미얀마 북동부를 강타한 지진 피해 구호성금으로 5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도 함.
- 아세안은 의장국(베트남) 명의의 성명을 내고 총선을 환영하였으며 향후 민주화 개혁에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잔액 비중 감소하고 있으나 외채상환 실적 부진

-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50.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5.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0년 말 기준 OECD 국가앞 중장기 외채 5.9억 달러 중 95%인 5.6억 달러가 연체되는 등 외채상환 실적이 부진한 편이나 2009년 말의 연체율 99%(5.35억 달러 중 5.31억 달러) 수준보다는 개선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수출입은행: E(2008.12) → E(2009.12)
- OECD : 7등급(2009. 4) → 7등급(2010. 4) → 7등급(2011. 3)
-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 인수금지
- ECGD : 인수불가
- Hermes :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Atradius : 제3국 확인 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5년 5월 16일(북한과는 1975년 5월 16일 수교, 1983년 단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7년), 뉴스교환협정(1972년), 항공협정(1978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2002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미얀마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미얀마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244	406	479	건설광산기계, 선재봉강 및 철근, 형강
수 입	116	78	160	의류, 농산가공품, 임산부산물
합 계	360	484	639	

자료: 한국무역협회.

- 미얀마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에 대 미얀마 수출이 전년 대비 66.6% 증가함에 따라 교역규모가 약 34% 증가한 4억 8,450만 달러를 기록함.

- 2010년에는 수출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2009년 대비 104.1% 증가함에 따라 교역규모가 6억 3,87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함.
 - 주요 수출제품은 건설광산기계, 선재봉강 및 철근 등이고 주요 수입제품은 의류 및 농산가공품임.
- 우리기업의 대 미얀마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기준 62건이며, 투자누계액은 6억 4,605만 달러임.

VI. 종합 의견

- 미얀마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국영부문 및 민간부문의 산업생산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1%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1.8%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10년 신정부 출범과 천연가스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3.3%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이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취약한 세수 기반과 국방비 및 수도 정비사업 관련 지출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한편 유류제품, 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까지 20%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들어 석유 및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한자리수 대로 안정세를 보임.
- 천연가스 수출 증가로 상품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외환보유고 역시 수출 확대에 의해 증가하고 있으나, 외채상환실적은 부진한 상황임.
- 1988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 심각한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가 크게 불안하였음. 2010년 11월 군부주도의 총선이 실시되고 2011년 1월에 첫 정기국회가 개최되는 등 신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군부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미얀마에 대해 제재와 대화의 이중노선을 병행하고 있으며, NLD 소속인 아웅산 수치의 입각과 정치범 석방, 정부-소수종족-NLD 간의 3자 회담이 이뤄질 경우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음.

조사역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